



정교회주보

제2548호
2025년 10월 26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가 제6주일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제3조 • 조과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성 디미트리오스 찬양송 198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디모테오 후 2,1~10 (봉)602
- 복음경 : 루가 8,27~39 12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수도자 복장

수도자 복장은 성직자 일상복(1,2 / 주보 2547호 참조)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착용의 의미와 구성 요소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회개'와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끊임없는 기도과 노동, 영적 투쟁을 위한 '전투복'의 의미가 큰 것이다. 또한 이 복장은 '제2의 피부'이자 살아있는 관(棺) 혹은 수의(壽衣)이다. 따라서 수도 서원을 통해 세속을 떠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절대 벗지 않는다. 이는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고,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산다는 서원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수사의 모자(스쿠포스, 3)는 수도 생활의 겸손과 헌신을 상징하며, 세속적인 생각을 막고 모든 정신을 하늘로 향하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수녀가 만딜라(4)라는 검은색 베일로 머리와 목 전체를 가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을 서약한 신부로서, 정결과 순결을 지키고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허리띠(조니, 5)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에페소 6,14) 구절처럼, 영적 투쟁을 위해 항상 깨어 있으며,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묶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다. 주로 가죽으로 만든다.

(2면에서 계속)

사랑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하기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골로사이 4,6) 우리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성격과 능력, 받아들이는 방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에 따라 말하는 방법을 조정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상대에 따라 말투나 방식을 바꾸는 건 위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신중함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의사도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모두 똑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체력이나 병력, 유전적 요인, 나이, 민감도 등을 살펴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학생의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합니다. 특히 개인 지도를 할 때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고려해 수업을 조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에 알맞은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기준과 방향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창의적입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소통할 방법을 찾아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를 지지하고, 도와주며, 바르게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자녀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유익과 성장을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언을 건네고, 필요할 때는 지적을 하며,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가 듣기 싫어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진실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로 상대를 짓누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단지 옳고 확실한 것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사랑으로 감싸질 수 있게 만듭니다.

상대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전하려는 진리조차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말하기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조금씩 다가가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바로 사랑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1면에서 계속)

가슴에 착용하는 스키마는 수도자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수도 서원의 단계에 따라 스키마의 모양이 다르다. 메갈로 스키마(6)는 서원의 최종 단계에서 착용한다. 이 스키마를 착용한

수도자는 독신, 순종, 무소유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서원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은둔하는 금욕적인 삶을 추구한다. 검은색 바탕에 붉은 실로 십자가, 골고타, 창과 해면, 그리고 그리스어 약자로 구원의 상징 문구가 수놓아져 있다.

지혜로운 생각들

안토니 블룸 대주교(1914-2003, 영국 수로즈의 주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새로운 하루는 하느님의 미소입니다. 그것을 큰 웃음으로 변화시킬지 눈물로 변화시킬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진정하고 유일한 행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유일한 것입니다.

행복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는 오를 수 없는 사다리입니다.

행복을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그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시간'을 세지 않으시고, '무게'를 재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조차 하느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극도의 긴장과 갈등속, 한계점에 다다른 순간, 또 폭풍우의 한 가운데서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두신 자리에 당신이 있다면, 그분이 반드시 당신을 만나러 오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작은 웃음은 삶에서 빈틈을 메우려고 우리가 놓는 다리입니다.

웃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작은 웃음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만일 우리가 웃음과 친절로 삶을 바라보면, 인생도 우리에게 웃음과 친절로 화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면 그들이 당신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들도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지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당신 자신을 닮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 한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일에서는 누구나 조심하고 자신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없다면 얼마나 우울하고 쓸쓸할까요. 또 노인들이 없다면 얼마나 비인간적 일까요.

사람들은 한 가지 것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화)은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님의 축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가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 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1월 1일(토)

성 코즈마스, 성 다미아노스 자선 치료자와 어머니 성 테오도티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2026년 축일달력 발간

내년 축일달력이 발간되었습니다. 주제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최근에 시성된 성인 열두 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성인들을 본보기 삼아 우리도 삶의 목표를 '거룩해지는 것'으로 삼고 새해에도 거룩함을 향한 영적 투쟁을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에 발간된 것은 탁상용 국문 달력으로, 1부당 7,000원입니다. 각 성당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탁상용 영문 달력과 벽걸이 국문 달력은 추후 발간 예정입니다.

알림

가평 수도원, 인천 성당 교인들 방문

지난 16일(목), 인천 성당의 김영숙 올림비아 사모와 교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에 참배하고, 뿌르피리오스 성인의 책에 나오는 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3시과와 '성모님께 드리는 기원 의식'을 올리고, 예수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서 만과를 드리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물해 주신 수도원 필요 물품은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서울 성당 음식 축제를 마치고

지난 주일(19일)에 열린 '만나라 이웃나라 음식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다채로운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즐기고 정교회를 이웃에게 알리는 뜻깊은 선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 재료를 제공해주신 분들,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들, 행사 운영을 맡아주신 분들, 사전 준비부터 마무리 정리까지 수고해주신 신데즈모스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0일(월), 간단한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속히 쾌차하시어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울 성당 페인트 작업 봉사

서울 성당 내부와 경내의 페인트 보수 작업이 필요한 곳에 요한 수도사, 최 블라디미르 교우, 키토노프 디오니시 교우가 자원하여 봉사했습니다. 세 분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사람들은 티토이스 사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손을 치켜들고 기도할 때 손을 내려야 할 순간을 놓치게 되면, 어느새 무아지경에 빠져 정신이 하늘에 올라가 있곤 했다."